

**알레르기를 포함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와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전효정, 신현택, 손현순, 임경화, 송인숙¹, 이영숙¹, 홍천수², 장병철²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¹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배경: 의약품 부작용은 미국의 6번째 사망원인의 하나이고, 입원환자 중 6.7%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알레르기를 포함한 의약품 부작용은 사전 점검 및 환자의 인지를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나,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고 관리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목적: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 경험이 없는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의 인지와 이해도를 비교 분석하고 의약품 부작용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따른 환자들의 인지도 분석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의 예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의 EMR을 시행하는 교육병원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현장설문의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의약품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환자(실험군)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대조군) 두 군으로 나눈 후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예방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의약품 부작용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부작용 정보 및 이해도에 대한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인식도를 보였으며, 적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의약품 부작용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 이해도, 관리면에서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와 관리면에서 적극적이었으며, 장기복용(1년 이상)한 환자보다는 1개월 이내 및 길게 복용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1) 의약품 부작용의 기본적 정보 제공, 2) 약력 기록카드 활용, 3) 의사의 적극적 참여, 4) 약사의 적극적 복약지도와 같은 예방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의약품 부작용의 정보 및 이해도에 있어서 환자들의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부작용 관리의 인식도는 낮았으며, 소극적이고 의사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 보조도구로 약력 기록카드의 활용, 의약품 부작용의 기본적 정보 제공, 의사 및 약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